

이웃 종교 RELIGION



아이티 돕기 종교계 앞장서

가톨릭 미화 5만불 우선 지원, 원불교 구호대 급파 등

최근 지진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아이티 국민을 위한 구호의 손길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등 주요 교단도 팔을 걷고 동참해 나갔다.

천주교 서울대교구(교구장 정진석 추기경)는 국내 최대 천주교 NGO 단체인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이사장 김윤회 주교)를 통해 긴급 구호자금 미화 5만 달러를 아이티에 우선 지원했다. 전달된 구호자금은 한국카리타스(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를 통해 국제 카리타스에 전달, 아이티 지역의 재해 복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는 전국 16개 교구에 공문을 보내 신자들을 대상으로 기도와 특별 모금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진석 추기경은 “지진 참사로 수많은 아이티 국민이 희생됐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희생자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며 “피해지역 장기 복구사업을 위한 모금활동과 기도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원불교(교정원장 김주원)는 2009년 각종 재해재난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기 위해 발족한 원불교 재해재난구호대를 보내기로 결정, 아이티 구호활동 준비에 착수했다.

구호대는 1월 16일 서울회관 4층 회의실에서 아이티 구호활동과 관련해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지원방법과 규모 등에 대해 협의

했다.

구호대는 아이티 현지의 피해 상황 및 긴급구호의 실태에 대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20일 현장조사팀을 파견, 이후 2월 중 본대를 파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전 교단적 모금운동도 전개 중이다. 원불교은혜심기운동본부는 15일부터 원불교 홈페이지를 통해 모금운동에 나서 19일 현재 2000여 만원의 성금이 모아졌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김삼환 목사)는 1월 30일까지 1억원을 목표로 헌금해 세계교회협의회(WCC)의 긴급지원 국제기구와 카리브해 교회협의회(Caribbean Conference of Church)를 장구로 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 열려

19일 부산 중앙성당서

개신교, 천주교, 성공회 등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는 대규모 행사가 열렸다.

기독교인들의 화합을 위한 '2010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가 1월 19일 천주교 부산 중앙성당에서 성당에서 거행됐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I)와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해마다 세계그리스도인 일치기도 주간인 1월 18-25일 사이에 기독교인의 화합과 일치를 기원하는 일치기도회를 개최해 왔다.

올해는 부산에서 열리는 2010년 제10차 세계교회협의회(WCC)총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뜻에서 일치기도회 장소를 부산으로 정했다.

이날 기도회에는 천주교 주교회의 교회 일치와 종교간 대화위원장인 김희중 주교, 천주교 부산교구장인 황철수 주교, 대한성

공회 부산교구장인 윤종모 주교, NCKI 총무인 권오성 목사, 오스발도 파벨라 교황대사와 신도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주제는 '너희는 일의 증인이다'라는 누가복음 구절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교회일치의 근간이며,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에 협력해야한다'로 삼았다.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이란 전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위해 해마다 1월 18-25일 가톨릭 로마 교황청과 세계교회협의회(WCC)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기도행사다.

1908년 미국의 와트슨(Paul Watson) 신부가 창설한 교회일치주간과 프랑스의 쿠튀리에(Courturier) 신부가 제창한 일치를 위한 기도주간에 기원을 두고

있다.

쿠튀리에의 1935년 일치주간을 전 세계적인 기도주간으로 발전시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선택한 종교를 통해 일치를 위한 기도를 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성공회에서도 교회일치주간과 관련 단체들을 발전시키고,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전신인 신앙직제운동 역시 1920년대부터 성신강림축일에 맞추어 교회일치를 위한 기도주간을 발전시켰다.

이후 로마교황청·동방정교회·성공회·세계교회협의회 등이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으로 하자는데 합의했다. 이나은 기자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이 교회일치와 화합을 염원하며 아침기도를 하고 있다.

사찰에 복지노하우 전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사업계획 발표

창립 15주년을 맞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 이하 복지재단)이 사회적 소통과 화합의 실천을 골자로 하는 2010년 사업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복지재단은 1월 20일 전법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체계를 새롭게 정비해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고 시대를 선도하는 복지재단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대오 스님은 “복지재단은 창립 15년 만에 국내 단일 법인으로 최대 규모인 메이저급 법인으로 성장했다”며 “복지재단의 노하우와 자력을 종단과 사찰·신도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전략적 단초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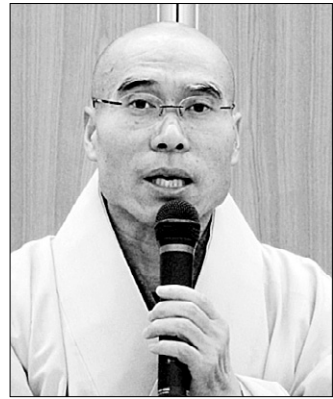
2010년 한해 동안 복지재단은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불교’를 모토로 불교사회복지의 선도와 내·외적 향상, 자원봉사의 생활화, 인재발사, 전수조사를 통한 좌표 설정 등 6개 분야로 나눠 사업을 진행한다.

먼저 복지재단은 불교계 사회복지법인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정부의 사회복지정책방향을 공유함과 동시에 사회복지현장에 필요한 교육과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함양해 불교사회복지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대오 스님은 “사찰들의 사회복지사업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라며 사찰 사회복지참여의 뜻을 밝혔다. 이에 복지재단은 본·말사 주지스님 연수교육 등을 활용하는 한편, 개별 사찰마다 사회복지사업 참여의 필요성을 높이고자 교구부사를 중심으로 연찬회 등을 열어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130여 복지재단 산하시설에 대한 확대도 계속된다. 복지재단은 1월 중 종로와 중랑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3·4월에는 고양행신그린 어린이집,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여주시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하는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운영해 포교활동의 전초기지로 구축한다.

특히, 국내 이주민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다문화지원센터 운영을 전격적으로 확대해 다문화축제, 모국(전정)방문 지원 및 생계·양육비 지원 결연후원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눈에 띈다.



대오 스님.

복지재단은 1995년 재단 설립 이후 교계 내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해 중앙직할부서단 육성, 1사찰 1자원봉사센터 개설운동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재단은 교계 상·장래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열혈자원봉사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올해 100여 명의 열혈봉사자를 추가로 양성, 상시 파견체제를 구축해 요일과 장소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별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마곡사를 비롯해 교구부사 3곳에 시범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신도들을 통해 자원봉사교육을 실시해 나간다.

복지재단은 지난 해 국가법령에 의해 종교계 최초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10회에 걸쳐 800여 산하 시설 종사자를 교육시켰다. 올해는 교계 주요법인과 연계해 20회 동안 1600여 교계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불교사회복지 인재발사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재단은 정신·심리적 치유를 중심으로 하는 불교의 강점을 살려 정신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자, 전문가 중심으로 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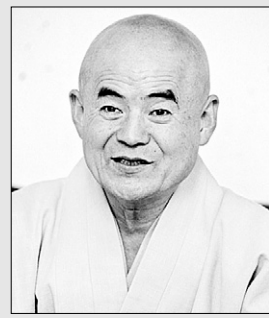
2010년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가 2009년 대비 4만6000명이 증가해 16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재단은 자비나눔 실천활동을 확산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는 복지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월 1만원의 후원자 1만 명을 모집하는 후원회 ‘만원의 행복’을 결성해 재정적 지원 기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이 몸뚱이는 내 것 아니야”

장기기증 릴레이 첫 주자 혜국 스님

“잠깐 동안 지수화풍(地水火風)으로부터 빌려 쓰다가 그 쓸모 없는 것을 누군가가 쓸모 있게 써 주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몸뚱이는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장기기증을 신청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며 “장기·시신 기증을 하고 싶은 뜻이 있는데 불교계에 장기

기증 관련 기관이 없었다면 스님의 행색으로 기독교, 천주교 단체를 이용했을 것이라 생각하니 불교계에 생명나눔실천본부(이하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혜국 스님은 호화로운 장례·화장문화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스님은 “화장문화는 한 몸뚱이 태우기 위해 많은 사람의 수고와 물론 수십년을 자라야 그만 한 나무가 되는 화장목을 태워 공기를 오염시키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다”며 “스님들의 장례문화가 호화롭지 않기 위해서 장기·시신기증을 의무적으로 서약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혜국 스님은 “연비를 하고 부처님께 절을 하는데 내가 없어지고 부처님만 남아있는 느낌을 순간 경험한 적이 있다. 그 후로

기증 관련 기관이 없었다면 스님의 행색으로 기독교, 천주교 단체를 이용했을 것이라 생각하니 불교계에 생명나눔실천본부(이하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화장문화는 한 몸뚱이 태우기 위해 많은 사람의 수고와 물론 수십년을 자라야 그만 한 나무가 되는 화장목을 태워 공기를 오염시키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다”며 “스님들의 장례문화가 호화롭지 않기 위해서 장기·시신기증을 의무적으로 서약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나은 기자

교계 노인복지시설 괄목 성장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시설 평가

국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제환)는 1월 13일 노인복지시설,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4개 유형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평가 시설 4개 유형 중 노인종합복지관은 2006년도에 비해 모든 평가 영역에서 점수가 상승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이 가운데 노인복지관 11곳, 종합사회복지관 12곳이 불교계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종합복지관 부문에서 불교계 시설 22곳 중 11곳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돼 불교계의 노인복지관 운영이 사회적으로 검증받았음을 증명했다. 그러나 단 한곳도 선정되지 못한

시설부문이 있다. 모자보호, 모자자립, 미혼모자공통생활가정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부문의 불교계는 80곳 가운데 2곳 밖에 운영하지 않는 등 낮은 참여도를 보였다.

이나은 기자

◆노인종합복지관부문 최우수기관= 광진노인복지관, 구로노인복지관, 남양주노인복지관, 서구노인복지관, 서울노인복지센터, 성북노인복지관, 송산노인복지관, 안양시노인복지센터, 원미구노인복지회관, 은평노인복지관, 일산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부문 최우수기관= 개금종합복지관, 금오종합복지관, 낙동종합복지관, 남구종합복지관, 본동종합복지관, 부곡종합복지관, 용문종합복지관, 용호종합복지관, 원주명륜종합복지관, 지산종합복지관, 하남종합복지관, 학산종합복지관, 한솔종합복지관.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대학장 : 호 암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이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 ◇모집학과 : 사미과, 사미과, 사교과, 대교과(각 6개월 과정)
- ◇원서교부 : 2010년 1월 10일 부터 ~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개 강 : 2010년 3월 8일 월요일
- ◇교수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 ◇출가수행, 사미, 포교원운행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

불교 예술 대학

◆교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강의내용 : 사물타루는 법 등 기초시교육
- ◇원서교부 : 2010년 1월 10일 ~
-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 ◇개 강 : 2010년 3월 9일 화요일

제천 금강사 기로원 입소자 모집

실버타운



금강선원에서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제천 기로원을 완공하여 비구니 스님과 여성 불자들이 편안한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복지타운으로 이용될 요사체에 입소하실 비구니, 여자 불자들의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방 규 모 : 원룸형 8평 18실 (방1개, 베란다, 욕실)
- ◇입소자격 : 비구니, 여성불자
- ◇입소비용 : 평생 거주 5,000만원
- ※ 자세한 내용은 금강선원 사무국 02)969-2410으로 문의 바랍니다.